

**사설**

**공무원불자회 전국 조직화 의의**

공무원 불자 조직이 전국화됐다. 12월 20일 광주시청불자회가 결성됨으로써, 제주도청을 제외한 전국의 특별(광역시)·시·도청에 근무하는 불자들이 조직체계를 갖춘 것이다.

공무원불자회도 하나의 직장불교 단체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 특성으로 볼 때 단위사업장 규모의 직장 불자회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자한 대인 서비스는 그 자체로 바라질행이다. 또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불교 단체와 연대, 효과적인 포교는 물론 불교인의 대사회활동의 중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공무원 불자회의 조직화는 불교의 사회적 저변이 넓어진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신앙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신행공체'로서의 성격이다. 흔히 불교 교단을 일컬을 때 '사부대중'을 말하지만 그것은 승

·속을 망라한 포괄적 개념일 뿐, 당장 손을 맞잡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의 모임은 아니다. 앞으로 재가대중은 일터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모임으로 그 정체성을 세로이 할 가능성이 크고, 공무원 불자회가 구성체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계종단에서는 일교성의 지원이나 형식적인 격려가 아닌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상시적인 법사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해당 지역의 특정 사찰을 원할 개념의 실행 근거지로 맺어주는 일도 당연한 수순이다.

공무원 불자회의 전국 조직화는 사회화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화·탈사찰화·개인화의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공무원 불자회의 활성화를 계기로 전국 직장·직능 불자회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심 밖에 있는 원력 보살들**

'좋은 벗 풍경소리'라는 단체가 있다. 어린이 찬불가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며 어린 마음에 음악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어주고자 하는 단체이다. 심시일반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지난 10여년이 형극의 길이 있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회원들의 마음이다. 또한 지난 12월 13일 불교방송 대법당에서는 '맛지마 니까야' 봉정식이 있었다. 한 개인이 부처님 본래의 목소리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원력으로 빨리 원전을 번역하여 출간했다는 교불식(告佛式)을 올린 것이다.

크고 작은 단체나 개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너나없이 상생과 해원의 노래를 부르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 종단 역시 각각

의 형편에 따라 노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단체나 개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너무 인색하지 않나 생각된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불교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경전을 번역하는 일은 불교적 가치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불교의 대중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일을 열약한 단체나 특정 개인이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중단적 지원이나 불교계 전반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불교 도입을 부정하는 일이나 진배없다고 말하고 싶다.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나 개인에 대해 불교계 전반의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지는 것이다.

**“승가 의무교육 8~10년은 돼야”**

**조계종 강원교직자 대상 교육과정 개선 토론회**

전국 강원에서 예비승려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스님들은 조계종의 현재 승가교육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교육목표 수행자 품성·자세확립 우선**

**삼보사찰 등 여법한 도량서 교육토록**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정산)이 12월 11~12일 전국의 강원 교직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산사에서 개최한 '승가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승가의 기초·기본 교육체계 개혁에 대한 현장 목소리 청취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승가교육체계 개혁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현재의 '선득도 후교육' 체계를 '선교육 후득도'로 전환하고 4년 교육 후 사미계 수지를 포함, 최소 6년의 교육을 마쳐야 구족계를 수지할 수 있도록 하

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터라 이미 '개혁'을 넘어 '혁명'의 물결기를 타고 있는 상태. 현장에서도 현재의 의무 교육 기간이 짧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듯했다. '조계종 교육 과정에 대하여...'를 발표한 정목 스님(불국사 승가대학 교수)은 "의무교육을 전문교과까지 10년 정도로 법제화해서, 출가하면 최소한 10년간은 공부만 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조계종 승가교육과정 일원화를 위한 방

안' 발표에서 "승가교육의 전체 의무교육 연한을 8년으로 잡을 것을 제안"했다. 두 스님은 종단 의무 교육을 최소 4~5년 이상 받아야 구족계를 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 후에도 4~5년의 전문·특성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본격적인 관심은 승가교육체계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모아졌다. 정목 스님은 "기초·기본 교육은 수행자로서의 자기 입지를 확고히 하고 수행자로서의 기

하기에 앞서 조계종에 속한 수행자로서 어떤 승가상을 구현해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야 한다"며 "승가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교육방법의 실질적인 장점과 내용 등을 창의적으로 계승하는 주제적 세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불교사회복지대회 개최 19일 목동청소년수련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2월 19일 서울 양천 목동청소년수련관에서 '2003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한다.

1부 기념법회와 2부 '불교사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로 진행되며, 대만 자제공덕회 기획홍보담당자의 '해외불교 자원봉사 사례' 소개 시간도 마련된다. 2부 세미나에서는 '불교사원봉사 참여 실태 및 현황', '불교사원봉사 조직강화 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김철우 기자

**“스님 법문 가장 즐겨 읽어요”**

**조계사, 사보 독자조사, 평균 1.7개 단체서 실행**

재가불자 10명 중 4명은 실행 방식으로 불교대학의 공부를 선호하고, 평균 1.7개의 실행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사(주지 지홍)가 12월 10일 발표한 '조계사보 독자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최근 일반화된 불교대학 교육과정인 재가불자들의 보편적인 실행방식으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호하는

실행방식은 불교대학(41.6%), 재입법회 참석(36.6%), 실행단체 참석(24.5%)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이는 그간 재입법회 참석 위주의 소극적인 재가불자 실행패턴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제공하는 불교대학으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설문 조사를 실시한 조계사의 경우, 지난 1989년 불교 기초교육과정인 불교대학 설립, 2001년 전문지도자과정 불교대학원을 개설하는 등 모범적인 실행

도교육시스템을 보이고 있다.

또 실행활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98.6%가 지속적인 실행활동을 한다고 답했으며, 실행활동 단체는 평균 1.7개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즐겨 읽는 지면은 스님 법문(42.5%)이 가장 많았고, 신설되길 바라는 코너는 스님들의 수행기(42.6%), 경전 문구 풀이(38.6%), 해외불교성지 소개(14.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직업별 실행행태의 경우, 화이트칼라층과 자영업자는 법회 동참(20.6%, 30.8%)을, 전업주부는 실행단체 가입(47.5%)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mahamall.co.kr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24일 동국학원 이사회 신임이사장 선임 논의**

제195회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회가 12월 24일 오전 11시 동국대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동국학원 새 이사장 선임을 안건으로 다룬 예정이다. 현재 동국학원 이사장 자리는 전임 이사장 정대 스님이 지난 11월 18일 입적함에 따라 한 달여간 비어 있는 상황이다.

권형진 기자

**1면에 이어서**

그러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가칭)를 통해 청소년 활동 종합인증서 발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수련회나 청소년참가프로그램에 청소년지도사를 상근시켜야 한다.

현재 1.2,3급 자격증을 갖고 활동 중인 불교계 청소년지도사는 70여명.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지도사가 8,573명인 것에 비하면 1%

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치이다.

최근 정부는 2007년까지 13,000여명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 양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청소년전문가들은 종합대학 내에 청소년관련학과를 설치,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고 불교문화를 한국역사로 재해석하는 문화 콘텐츠 개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목동청소년수련관과 양정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들이 그 모

범답안. 이들 청소년수련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프로그램들과 동아리활동, 길거리 농구대회, 음악·미술·영상활동 등은 청소년기본육성계획의 주요 추진 사업이며, 2007년까지 지방양여금 형식으로 300억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현성 스님은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실행으로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참여가 정책적으로 제도화되고 청소년동아리 활동과 프로그

**본사사령**

이동혁  
 편집국 취재1부 기자  
 의원면직  
 2003년 12월 1일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 에게 드리는 글**

본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으며 다음의 사항으로 글을 드리오니 장자종단의 포교원장으로서 한국불교의 포교활성화와 재가불교의 바른길을 인도하시기를 바라오며 포교사단의 조직과 운영을 밝고 바르게 운영하옵기를 간절히 기원 합니다.

**다 음**

본 불자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귀 종단의 포교사로서 활동하였으며 그동안 포교사단 중앙운영위원 및 부산 경남포교사단 사무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아울러 2000년 8월 귀종단의 불자교육기관으로 금강불교대학을 설립 등록하여 포교사 32명을 배출하여 경남지역의 포교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불자는 포교원에 중앙포교사단 및 부산 경남포교사단의 조직과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 요청을 수 차례 건의하였으나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 불자를 불명예스럽게 하였기에 현실을 바르게 밝히고 전하고자 글을 드립니다.

1. 중앙포교사단의 운영 및 포교회관련법금 유용 등 기타의혹과 목적금의 불법 변칙사용을 바르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 경남포교사단 단장의 공금유용 및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 단장 및 임원선출 행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화 포교사제도와 사찰 상임포교사 제도를 속히 시행하시어 포교사들의 포교활동에 큰 격려를 바랍니다.

2003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조 재완 드림